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세명전기 (01751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류치선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전기(017510)

초고압 송전 인프라 구축과 HVDC 송전망 전환을 주도하는 국내 송배전 금구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10.07 기준)

대표자	권철현
설립일자	1984.02
상장일자	1991.12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기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송전, 변전, 배전용 금구류

시세정보(2026.10.07 기준)

현재가(원)	7,97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193
발행주식수	15,246,000
52주 최고가(원)	16,570
52주 최저가(원)	5,200
외국인지분율	5.75
주요주주	권철현

■ 60여 년간 축적된 송배전 금구 국산화 기술

세명전기공업(이하 동사)은 1962년 세명전업상사로 출발하여 1984년 법인전환한 송배전선로 및 전철선로용 금구 전문 제조기업이다. 1969년 154kV 송전선 금구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후 345kV·765kV급으로 기술 범위를 확대했으며, 199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장치금구, 스페이서댐퍼, 클램프류, 점퍼장치 등 설계·제조 경험을 장기간 축적해 국내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 500kV HVDC와 고용량 전선으로 기술영역 확장

동사는 기존 154kV·345kV·765kV 교류 송전망용 금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2024년 500kV 초고압직류송전용 금구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공급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와 함께 LSCC와 ASCC430·520 등 고강도·용량증대 연AI 전선용 금구를 순차적으로 개발해 전력망의 대용량화와 효율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HCSC500용 금구와 고전력 송전선용 금구를 후속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설계·제작·시험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점이 제품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송전·철도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품종 제조 기반

동사의 사업영역은 송배전·변전선로 및 전철선로용 금구류를 중심으로 섹셔널빔과 자동차용 알루미늄 부품까지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력 금구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관련조합, 전차선용 금구류는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등 기간산업 수요처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부산 본사공장과 미음공장, 창원공장을 기반으로 알루미늄 주조·단조·정밀가공과 각종 금속가공 역량을 갖추고 있어 송전망 고도화와 고속철도 시스템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124.8	-10.64	20.0	16.0	13.1	10.5	1.8	1.57	11.2	86	4,917	32.85	0.57
2024	144.3	15.64	30.3	21.0	46.9	32.5	6.1	5.3	12.6	307	5,154	14.84	0.88
2025	323.3	124.1	148.2	45.8	127.6	39.5	15.1	12.0	18.5	837	5,911	10.50	1.49

기업경쟁력

초고압 송전 금구 국산화 경험

- 154kV 송전 금구 국내 최초 개발 경험 확보
- 345kV·765kV급 애자장치 및 스페이서댐퍼로 기술범위 확장
- 500kV HVDC 금구 개발 및 자체생산 공급체계 구축

설계·제작·시험 일관 기술체계

- 기업부설연구소 기반 자체 설계·시험 인프라 확보
- AL 주조·단조·정밀가공 기반 다품종 금구 생산체계 구축
- 고용량 전선·철도 전차선 등 고객 요청 규격 대응형 제품개발 역량 보유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초고압·HVDC 송전 금구

- 154kV·345kV·765kV 교류 송전망과 500kV HVDC에 적용되는 애자장치·금구·클램프류·스페이서·댐퍼·점퍼 장치 설계·제조기술 보유



고용량 전선·전차선 금구

- LSCC·ASCC 계열 고효율 전선용 금구와 고속철도 장력조정장치·브래킷·클램프 등 인프라용 금구 제품군 확보



시장경쟁력

초고압·HVDC 금구 공급 레퍼런스

- 154kV·345kV급 송전 금구 개발 경험과 765kV 공동개발 이력을 축적하고, 500kV HVDC 금구의 자체 생산 및 수주·납품 실적을 확보하며 초고압 송전금구 시장 내 현장 레퍼런스 구축

공공 인프라 수요처 대응 기반

- 한국전력공사·전기관리조합 및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기간산업 수요처를 대상으로 장기간 제품을 공급하며 품질규격 및 발주 특성에 대한 대응 경험 확보

고용량 전선·철도까지 확장된 제품 대응력

- LSCC·ASCC 계열 고용량 전선 금구와 고속철도 전차선 금구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고객 수요 규격에 대응하는 다품종 설계·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적용시장 확대

I. 기업 현황

초고압 송전과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구 전문기업

동사는 60년 이상 축적한 송배전 금구 기술을 기반으로 154kV에서 765kV 및 500kV HVDC까지 제품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철도 전차선 금구와 고용량 전선용 제품 개발을 병행하는 국내 전력 인프라 부품 전문기업이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62년 창립 이후 국내 송전망 고도화 과정에 맞춰 154kV · 345kV · 765kV급 송전선 금구를 순차적으로 개발해 왔다. 1984년 법인전환 이후 199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1999년 765kV 송전용 금구와 KTX 전차선 자재 개발에 참여하면서 전력과 철도 인프라를 양대 사업축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미음공장 확충, 고강도 · 용량증대 전선용 금구 개발을 지속했으며 2024년 500kV HVDC 금구 개발을 완료하며 차세대 송전망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힌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동사는 2024년 500kV HVDC 금구 개발을 완료한 이후 실제 수주 · 납품 단계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전력 송전선용 금구와 HCSC500용 금구 등 차세대 제품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흐름은 국내 송전망의 대용량화 · 고도화에 대응하는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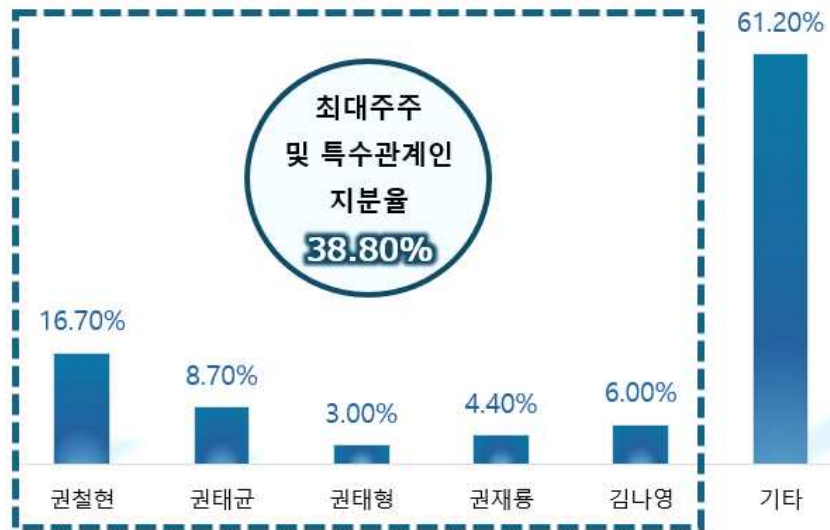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권철현 대표이사가 경영을 총괄하는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권 대표는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2009년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765kV급 기존 송전 금구의 고도화와 LSCC · ASCC 계열 고용량 전선용 금구, 500kV HVDC 금구 등 신제품 개발이 이어졌으며 미음공장 확충과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통해 제조 · 기술 기반을 강화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장기간의 송전 · 철도 기자재 사업 경험은 공공 전력 인프라 발주 특성과 기술규격 대응에 필요한 경영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 주주 현황

동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인 권철현 대표이사가 보통주 2,540,000주, 지분율 16.7%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으로 권태균 1,330,750주, 권태형 459,930주, 권재룡 670,000주, 김나영 920,0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은 5,920,680주로 지분율 38.8%를 구성하고 있다. 자기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없이 해당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과 동일하며, 최대주주 그룹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권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송·배·변전 금구류]

동사의 핵심 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와 수요지역으로 전달하는 송·배·변전선로에 사용되는 금구류의 설계·제조이다. 금구류는 전선을 철탑 및 애자장치에 체결하고 여러 가닥의 전선 간격을 유지하며, 바람·진동·인장하중을 흡수하여 송전선로의 기계적·전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품군이다.

동사는 154kV부터 345kV·765kV급까지 송전선 금구를 국산화해 왔으며 애자장치금구, 연결 클램프류, 스페이서댐퍼, 점퍼장치 등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수요 증가와 장거리 대용량 송전 필요성에 대응해 500kV HVDC용 금구를 개발하고 현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 ACSR 계열 전선뿐 아니라 LSCC와 ASCC430·520 등 경량·고강도·용량증대 전선에 맞춘 전용 금구를 개발해 전력망의 고효율화와 송전용량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500kV HVDC 송전선로용 금구의 개발을 완료한 이후 자체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납품을 추진하며 기술개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아울러 고전력 송전선용 LSCC, ASCC용 금구와 HCSC500용 금구 등 후속 제품 개발을 이어가며 국내 송전망의 대용량화·고도화에 대응하는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철도 전차선 금구류]

철도 부문은 전철과 고속철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로를 지지·연결·장력 유지하는 각종 금구류로 구성된다. 동사는 터널브래킷, 자동장력조정장치, 가동브래킷, 곡선당김금구, 조가선 현수클램프와 구분애자 등 전차선 관련 제품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 경부고속철도 컨소시엄을 통한 국산화 개발에 참여한 이후 2012년 도르래식 자동장력조정장치를 포함한 132종의 고속철도 전차선로 부품을 개발해 제품 범위를 넓혔다. 최근에는 400km/h급 도르래식 자동장력조정장치 개발을 완료하였고 경전철 구분애자 국산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철도 고속화와 도시철도 확충에 대응하는 제품개발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섹셔널빔]

섹셔널빔은 섬유직기에서 원사를 균일하게 감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루미늄 소재의 핵심 직기 부분품이고, 대형화·고속화되는 섬유직기에서는 경량성과 회전 정밀도, 강성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 단조와 정밀가공 기술이 중요하다. 당사는 대형 단조 설비를 보유하고 송전금구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알루미늄 소재 가공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규격의 섹셔널빔을 개발했으며, 유럽과 아시아 섬유설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최근 글로벌 섬유설비 투자의 지역별 편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형·경량 직기 부품에 대한 수요를 겨냥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market share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형·고속 직기용 부품일수록 경량성과 회전 정밀도에 대한 고객의 품질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당사의 알루미늄 정밀가공 기술은 제품 차별화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사가 축적한 다양한 규격 대응 경험은 섬유설비 업체별 사양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자동차 부문은 알루미늄 주조·단조와 정밀가공 기술을 활용해 엔진 및 동력전달계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통 내연기관 부품 수요가 축소되는 가운데 당사는 경량 알루미늄 가공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부품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유 투자부동산을 활용한 임대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사업 포트폴리오의 기술적 중심은 송전·철도용 금구와 알루미늄 가공기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기존 알루미늄 주조·단조 및 정밀가공 역량을 활용해 전기차 경량화 부품 등 신규 적용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알루미늄 소재의 경량성과 가공성을 활용한 부품 개발 경험은 향후 모빌리티용 경량 부품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사업부문	주요 품목	주요 사업 내용
송·배·변전 금구류	애자장치금구, 스페이서댐퍼, 클램프류, 점퍼장치	초고압 송전·배전·변전선로용 금구 설계·제조
철도 전차선 금구류	장력조정장치, 브래킷, 클램프, 구분애자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전차선로용 자재 공급
섹셔널빔	알루미늄 섹셔널빔	섬유직기용 경량·고정밀 회전체 제조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 주조·단조 부품	엔진·동력전달 및 경량화 부품 제조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초고압 전력망 증설과 HVDC 전환이 견인하는 국내 송배전 기자재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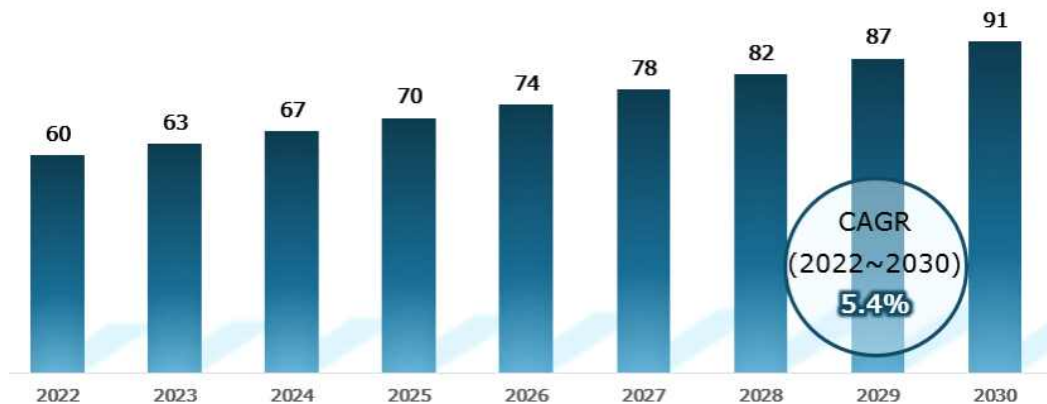
동사의 목표시장은 국내 전력 송배전 기자재 시장이며, 주력 제품은 송전선로의 애자장치 및 각종 금구류 분야에 해당한다. 시장 확대와 함께 HVDC-초고압 송전망 투자가 가속되며 고신뢰성 금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송배전 기자재 시장 전망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국내 전력 송배전 기자재 시장은 2022년 60억 달러에서 연평균 5.4%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91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군은 변압기, 개폐장치, 애자 및 금구류, 케이블·전선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동사의 주력 제품이 포함되는 애자 및 금구류 부문이 전망기간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3. 국내 송배전 기자재 시장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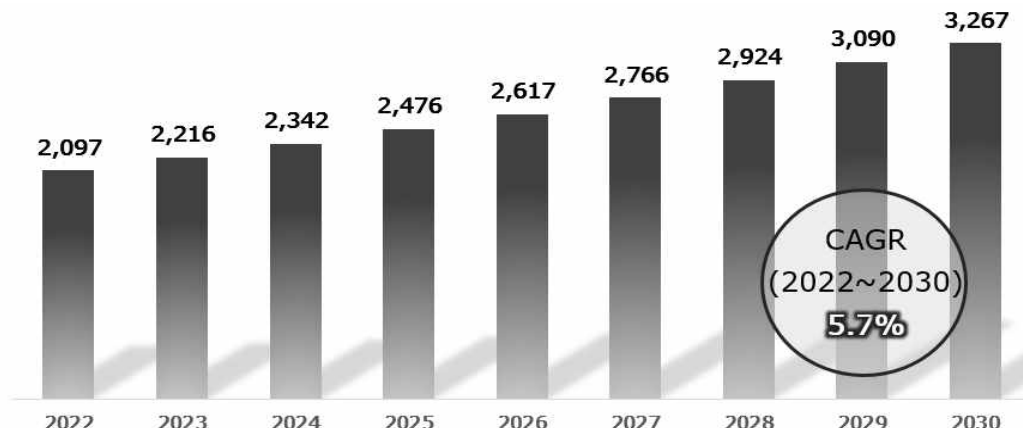


자료: Grand View Research(2026), NICE평가정보㈜ 재가공

글로벌 전력 송배전 기자재 시장도 2022년 2,097억 달러에서 2030년 3,267억 달러로 연평균 5.7% 성장할 전망으로, 국내외 전력망 투자 확대가 관련 기자재 수요를 함께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글로벌 송배전 기자재 시장

(단위: 억 달러)



자료: Grand View Research(2026), NICE평가정보㈜ 재가공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국내 송배전 기자재 시장은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신규 송전망 건설과 기존 설비 교체·보강 수요가 형성되는 기간산업형 시장이다. 특히 송전용 금구는 전압등급과 전선 규격, 철탑 구조에 따라 제품 형상이 달라지는 다품종 주문생산 성격이 강하며, 장기간의 품질검증과 현장 적용실적이 중요한 진입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전력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국내 송전선로는 2023년 35,596C-km에서 2038년 61,183C-km로 확대될 계획이며, 345kV 선로는 9,994C-km에서 19,284C-km로 증가한다. 특히 HVDC는 같은 기간 492C-km에서 3,818C-km로 약 7.8배 확대될 예정이어서 초고압 애자장치·클램프·스페이서 등 관련 기자재 수요의 증장기 기반이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노후 전력망 교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데이터센터 및 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가 송배전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장거리 대용량 송전을 위한 HVDC와 기존 철탑을 활용하면서 송전용량을 높일 수 있는 고강도·저이도 전선 적용이 확대되면서 금구류도 고하중·저진동·경량화 설계로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Grand View Research는 국내 HVDC transmission 시장이 2025~2030년 연평균 13.2% 성장해 2030년 약 1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HVDC가 전체 송배전 시장보다 빠른 성장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HVDC와 LSCC·ASCC용 금구를 이미 개발한 업체에 신규 규격 대응과 실적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술 개발 및 경쟁 업체 현황

송배전 금구류는 단순 금속가공보다 전압등급, 도체 구성, 진동·인장하중 및 장기간 극한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기술집약형 기자재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형 전력기기 업체와 전문 금구업체가 고신뢰성·경량화·HVDC 대응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전 규격과 현장실적을 확보한 전문기업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초고압·HVDC 제품에서는 개발·시험·납품 이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동사와 직접 제품군이 중첩되는 업체로는 제룡산업과 와이즈전기가 확인되며, 배전금구 분야에서는 성화금속 등이 경쟁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제룡산업	• 송·배전 및 철도전차선 금구류와 배전용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하며 500kV HVDC 금구 공급실적 보유
와이즈전기	• 154kV·345kV·765kV 및 HVDC 송전금구와 배전·통신금구를 생산하는 전문업체
성화금속	• 완철·가공지선지지대·접지동봉 등 송배전용 금구류를 제조해 국내 전력시장에 공급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초고압부터 HVDC·고용량 전선까지 확장된 금구 설계기술

동사는 154kV에서 765kV 및 500kV HVDC까지 전압등급별 송전 금구 설계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스페이서댐퍼·클램프·애자장치금구와 가공-지중 연결금구 등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고용량 전선용 금구와 철도 전차선 금구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전력 인프라 대응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 초고압·HVDC 송전선로용 금구 설계 및 진동제어 기술

송전선로용 금구는 전선을 단순히 고정하는 부품이 아니라 철탑과 애자, 도체 사이에서 인장하중을 분산하고 전선 간격을 유지하며 풍진동과 미세진동을 억제하는 기계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동사는 1969년 154kV급을 시작으로 345kV·765kV 송전 금구를 개발하면서 전압등급별 하중조건과 복도체 구조에 대응하는 설계경험을 축적하였다. 특히 다도체 송전선에서 각 소도체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는 스페이서댐퍼는 송전선의 피로와 손상을 줄이는 핵심 제품이다.

동사가 공동개발·공동출원에 참여한 6도체 볼트리스 스페이서댐퍼 특허(10-1119672)는 복도체의 진동 감쇠와 체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동사의 초고압 복도체 금구 개발 이력을 보여주는 기술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특허는 한국전기연구원과 복수 업체가 참여한 공동기술이므로 동사 단독기술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러한 초고압 금구 설계 경험은 2024년 개발을 완료한 500kV HVDC용 금구로 이어졌으며, 현재 실제 국내 HVDC 선로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설계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축적하고 있다.

■ 고용량 전선·클램프 및 가공-지중 연결 대응 기술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동일한 송전선로에서 더 많은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전선의 허용온도와 전류용량을 높이고, 고온에서도 처짐을 억제하는 고강도·용량증대 도체가 필요하다. 동사는 LSCC와 ASCC430·520용 금구를 순차적으로 개발했고 HCSC500 및 고전력 송전선용 금구를 추가 개발하고 있다.

기존 전선과 소재·직경·기계적 특성이 달라지면 클램프 압축력과 접촉면 형상, 응력분산 설계를 다시 최적화해야 하므로 전선 규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설계역량이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배전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중성선용 접지클램프 특허(10-2174042)를 등록했으며, 조임 구조를 활용해 여러 접지선을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특허 역시 한전과의 공동출원 기술로, 실제 전력망 운용기관과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공동개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 송전망 접속·철도 전차선 및 정밀 금속가공 기술

전력망이 복잡해지면서 가공송전선과 지중송전선 사이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접속부 설계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동사는 154kV 가공-지중 연결금구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HVDC 가공-지중 연결접속단자 개발용역을 완료하였다. 한국전력공사 및 티엔디엔지니어링과 공동출원한 전력선로 연결 브래킷 조립체 특허(10-2792800)은 가공선로 연결부의 구조적 안정성과 설치 편의성을 고려한 기술로 2025년 등록됐다.

세명전기(017510)

철도 분야에서는 터널브래킷과 자동장력조정장치, 가동브래킷, 드로퍼클램프 등 다양한 전차선용 부품을 국산화해 왔으며 400km/h급 도르래식 장력조정장치까지 기술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제품들은 부산·창원 생산거점의 알루미늄 주조·단조 및 정밀가공 공정과 결합되어 다품종 규격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동사의 기술경쟁력은 특정 단품보다는 초고압 송전, 고용량 전선, 가공-지중 접속, 철도 전차선까지 이어지는 오랜 기간의 금구 설계·제작·시험 경험에 기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 동사 주요 제품

송배전금구



전철용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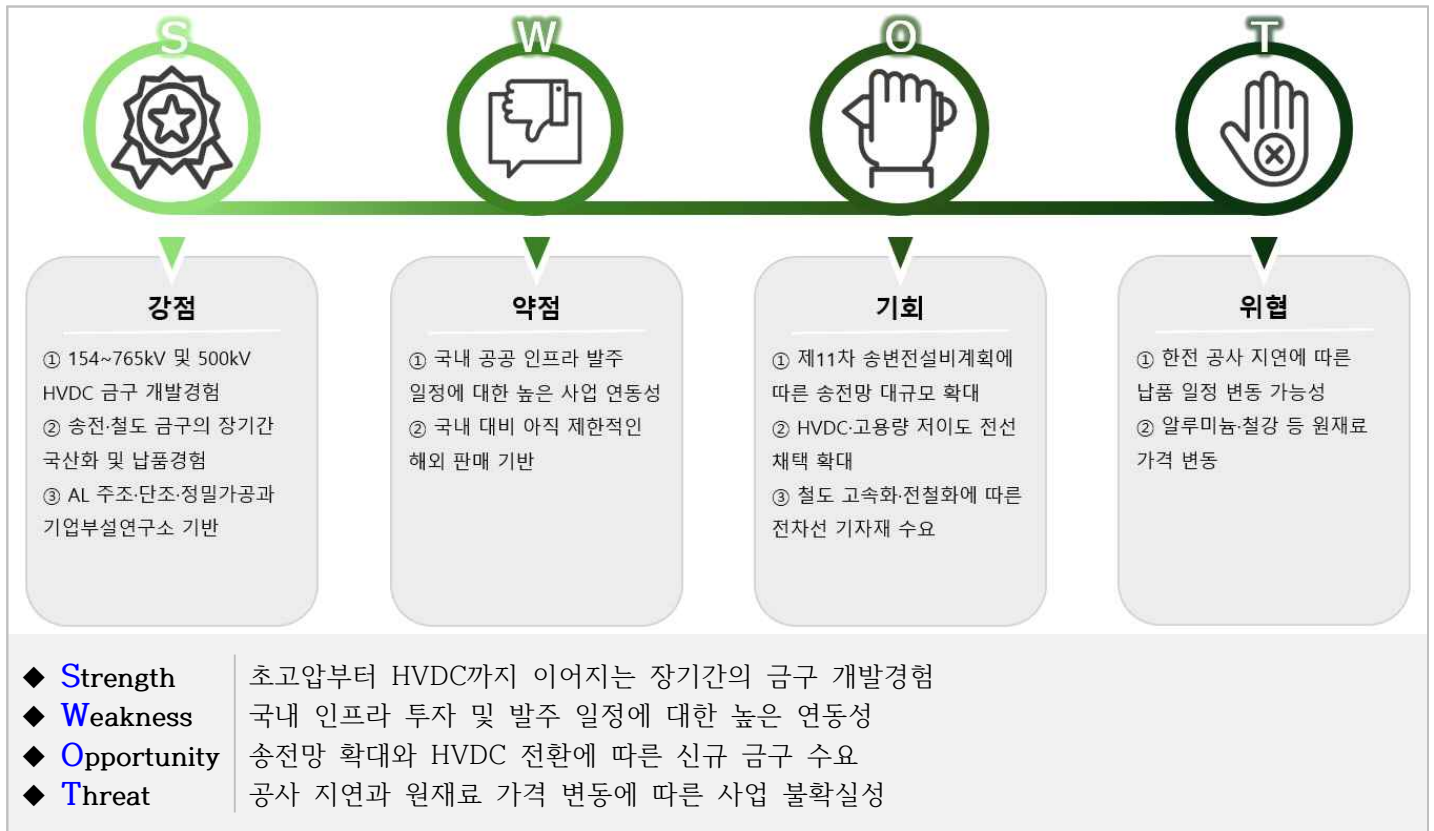
Tricot & Raschel B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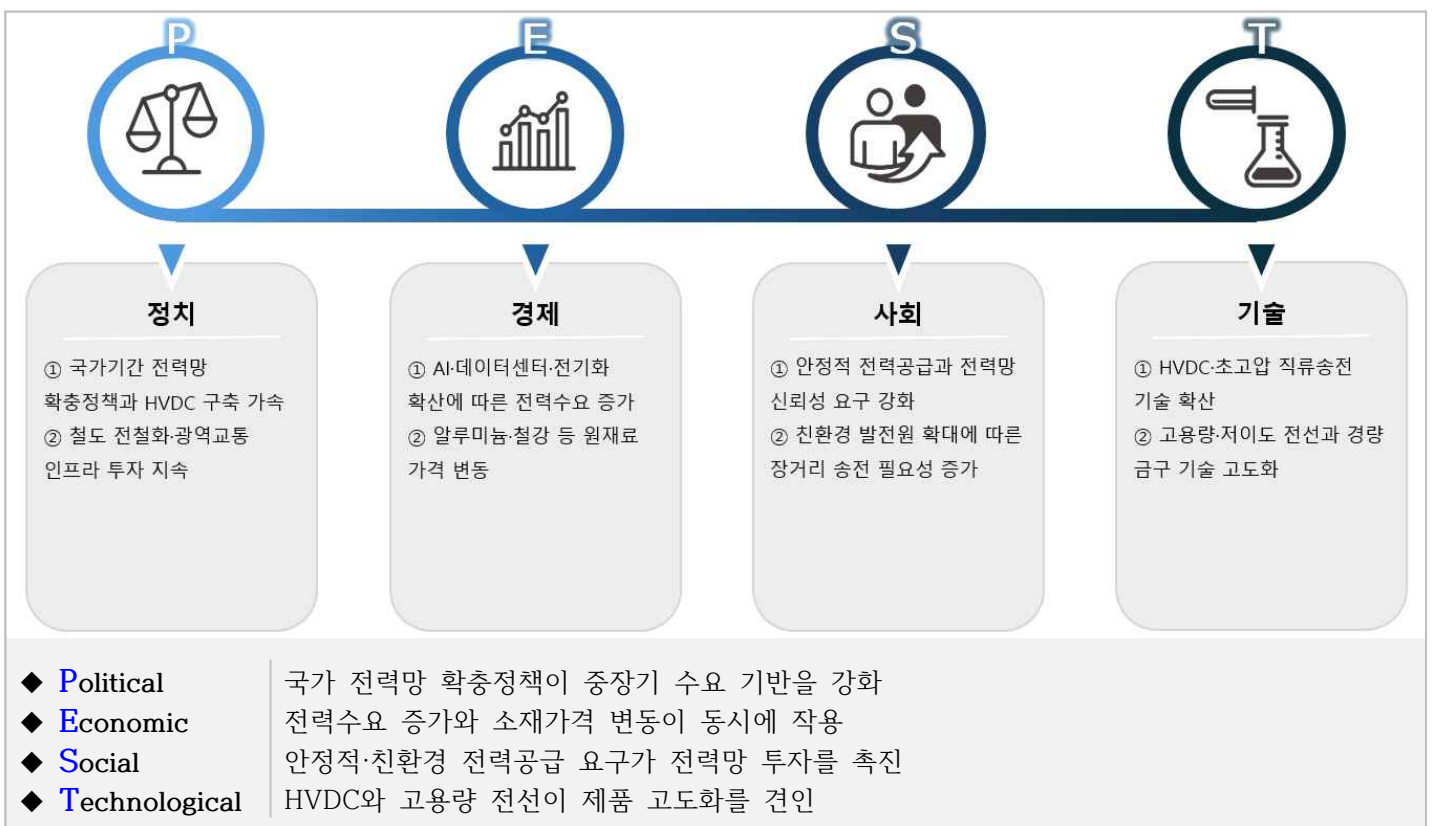
비철주조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HVDC 공급으로 2025년 매출 124.0% 성장, 영업이익률 45.8% 달성

동사의 2025년 매출액 전년 대비 124.0% 증가한 323.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 148.2억 원과 당기순이익 127.6억 원을 나타내었다. 또한 2026년 반기에는 매출액 222.1억 원, 영업이익 95.5억 원, 당기순이익 76.2억 원을 시현하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9% 성장된 흐름을 나타내었다.

■ 금구류 중심 단일 영업부문의 매출 구조

동사는 금구류(송배전용·전철용) 등 제조 및 판매부문을 국내의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5년 매출은 금구류 317.2억 원(98.1%), 섹셔널빔 1.1억 원(0.3%), 임대수입 5.1억 원(1.6%)으로 구성되었다. 매출액은 2023년 124.8억 원에서 2024년 144.3억 원, 2025년 323.3억 원으로 늘었고, 2026년 반기 매출액은 22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161.0억 원 대비 37.9% 증가하였다.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매출의 연속적인 증가는 전력 수요 및 전력망 투자 증가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영업이익률 40%대, 낮은 고정비 구조 유지

2024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5억 원 증가한 144.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15.6%), 영업이익은 10.3억 원 증가한 30.3억 원, 당기순이익은 33.8억 원 증가한 46.9억 원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21.0%, 순이익률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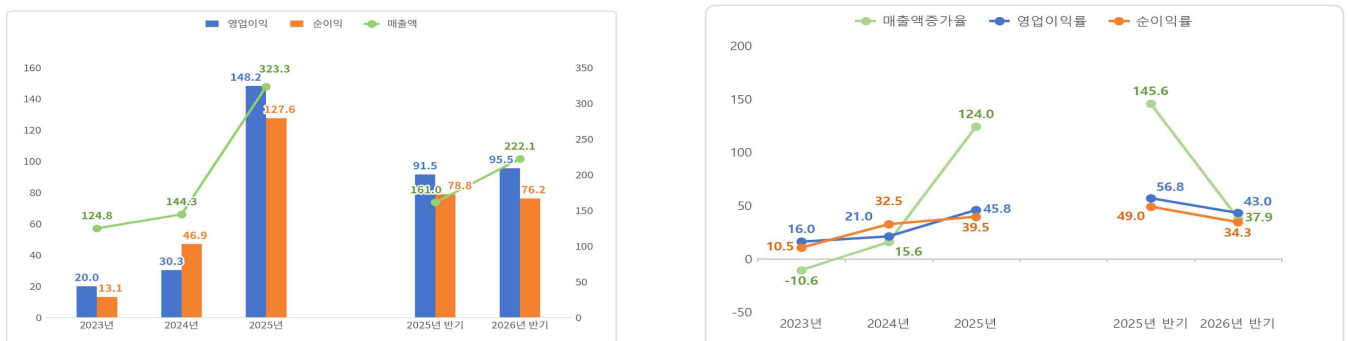
2025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9.0억 원 증가한 323.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124.0%), 영업이익은 117.9억 원 증가한 148.2억 원, 당기순이익은 80.8억 원 증가한 127.6억 원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45.8%, 순이익률 39.5%).

2026년 반기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1.1억 원 증가한 222.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37.9%), 영업이익은 4.0억 원 증가한 95.5억 원, 당기순이익은 2.6억 원 감소한 76.2억 원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43.0%, 순이익률 34.3%).

최근의 이익 증가는 매출총이익률 상승과 고정비 희석이 겹친 결과로 분해된다. 매출총이익률은 2024년 39.3%에서 2025년 55.6%로 높아졌고, 판매비와관리비는 매출액 대비 비율은 18.3%에서 9.8%로 낮아졌다. 원가 측면에서는 원재료 등의 사용액이 55.9억 원에서 94.3억 원으로 68.7% 늘어 매출 증가율(124.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 6.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세명전기(017510)

■ 부채비율 16.0%, 차입금 없는 재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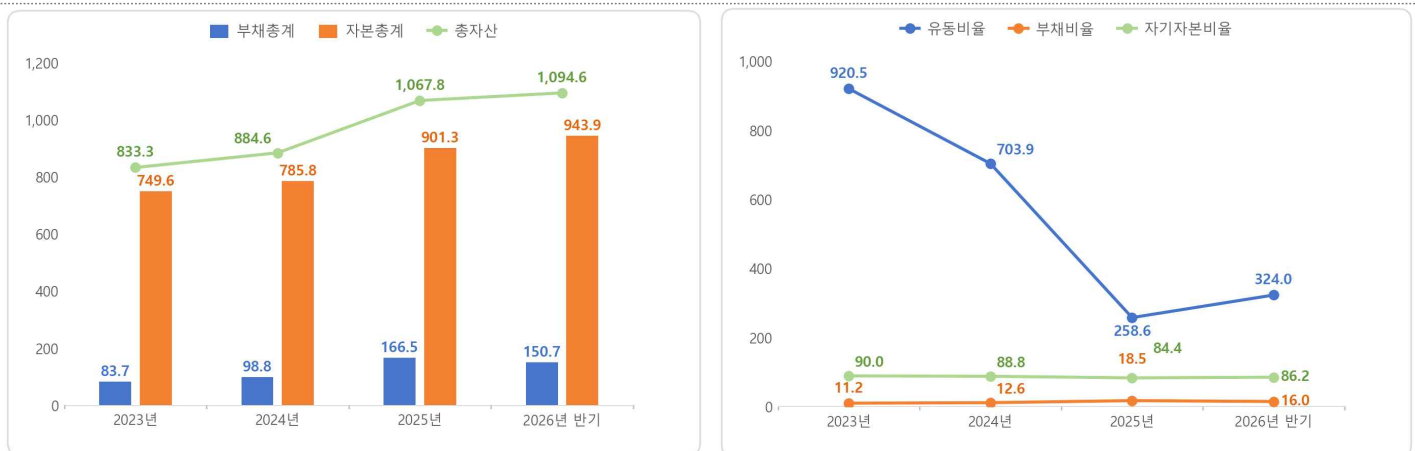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51.3억 원 증가한 884.6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5.1억 원 증가한 98.8억 원, 자본총계는 36.2억 원 증가한 785.8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216.6%p 하락한 703.9%, 부채비율 1.4%p 상승한 12.6%, 자기자본비율 1.1%p 하락한 88.8%).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83.2억 원 증가한 1,067.8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67.8억 원 증가한 166.5억 원, 자본총계는 115.5억 원 증가한 901.3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445.3%p 하락한 258.6%, 부채비율 5.9%p 상승한 18.5%, 자기자본비율 4.4%p 하락한 84.4%).

2026년 반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108.0억 원 증가한 1,094.6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6.5억 원 증가한 150.7억 원, 자본총계는 91.5억 원 증가한 943.9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13.4%p 하락한 324.0%, 부채비율 0.2%p 상승한 16.0%, 자기자본비율 0.2%p 하락한 86.2%).

그림 7.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반기	2026년 반기
매출액	124.8	144.3	323.3	161.0	222.1
매출액증가율(%)	-10.6	15.6	124.0	145.6	37.9
영업이익	20.0	30.3	148.2	91.5	95.5
영업이익률(%)	16.0	21.0	45.8	56.8	43.0
순이익	13.1	46.9	127.6	78.8	76.2
순이익률(%)	10.5	32.5	39.5	49.0	34.3
부채총계	83.7	98.8	166.5	134.2	150.7
자본총계	749.6	785.8	901.3	852.4	943.9
총자산	833.3	884.6	1,067.8	986.6	1,094.6
유동비율(%)	920.5	703.9	258.6	437.4	324.0
부채비율(%)	11.2	12.6	18.5	15.7	16.0
자기자본비율(%)	90.0	88.8	84.4	86.4	86.2
영업현금흐름	-50.9	154.9	121.7	-3.6	-1.9
투자현금흐름	15.7	-62.9	-148.0	-10.4	26.3
재무현금흐름	-10.5	-10.6	-12.2	-12.2	-33.4
기말 현금	4.4	85.8	47.3	59.7	38.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2026년 실적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은 HVDC 공급계약의 잔여 인도분과 HVDC 외 금구류 수요로 판단된다. 2026년 반기 매출은 222.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HVDC 공급계약 3건의 총 계약금액 333.6억 원 가운데 잔여 공급분은 48.1억 원으로 파악된다. 잔여 물량이 있는 3공구 계약 73.7억 원과 2025년 8월 체결한 93.3억 원 규모 계약은 모두 2026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으로, 하반기 중 추가적인 매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반기말 수주잔고는 155.3억 원으로 공시되었으나 금구류 단일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어 HVDC 잔여 공급분과의 중복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실적은 개별 HVDC 공급계약의 진행 현황과 잔여 물량을 중심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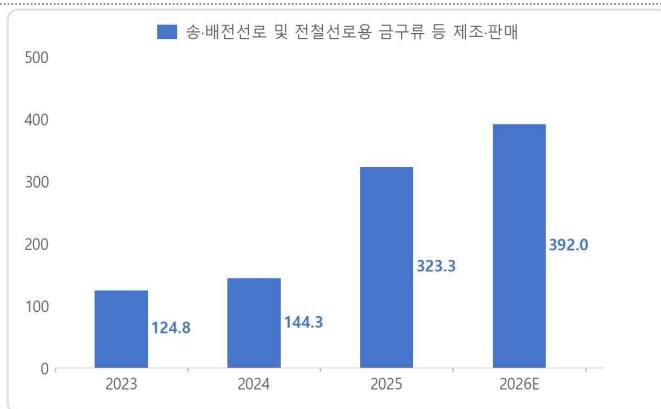
시장 측면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HVDC 송전선로를 2023년 492C-km에서 2030년 1,768C-km로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500kV HVDC 송전선로 관련 추가 수주 여부가 중장기 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2026년 반기 판매비와관리비는 12.1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5.4%에 그쳤으며, 반기 매출총이익률 48.5% 수준이 유지될 경우 높은 영업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매출채권 증가 영향으로 -1.9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관련조합 매출의 결제조건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 매출채권 회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구조 측면에서 2025년 기준 차입금 없이 자기자본비율 84.4%를 기록하여, 추가 차입이나 증자 없이 온전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동사의 2026년 매출은 전년 대비 21.2% 증가한 약 392억 원으로 전망된다. HVDC 관련 매출은 약 165.2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HVDC 외 매출은 약 226.3억 원으로 확대되며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 누적 매출은 연간 전망치의 56.7%로 2025년 49.8%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HVDC 공급 물량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하반기에는 HVDC 외 매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연간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의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일부 HVDC 잔여 물량이 2027년으로 이월될 경우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동해안~동서울 등 후속 HVDC 구간은 2027년 12월 이후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신규 수주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입금 부담이 없고 고정비 비중이 제한적인 손익구조를 감안하면, 매출 확대에 따른 높은 수익성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동사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개별 기준)



항목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124.8	144.3	323.3	392.0
송·배전선로 및 전철선로용 금구류 제조·판매	124.8	144.3	323.3	392.0

연도별 실적 및 전망

2026년 실적 및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및 추정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HVDC 상용 공급과 차세대 금구 개발이 맞물리는 성장 국면

동사는 500kV HVDC 제품을 개발단계에서 실제 납품단계로 전환했으며, 국내외 송전망 대규모 확충과 고용량 전선 기술 변화에 맞춰 후속 금구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중장기 사업기반과 시장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 500kV HVDC 개발에서 실제 공급으로 전환

동사의 가장 큰 최근 변화는 500kV HVDC 금구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전력망 공급 품목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동사는 2024년 국내 최초로 구축되는 500kV HVDC 송전선로용 금구 개발을 완료한 뒤 2025년부터 동해안~신가평 구간의 여러 공구에서 애자 및 전선금구 공급계약을 확보하였다. 2026년 상반기에도 관련 제품 납품이 진행됐으며, 일부 계약은 한국전력의 공사 지연으로 납기가 조정됐다. 이는 대형 송전망 사업의 공정 일정에 따라 납품시점이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사가 국내 HVDC 사업에서 실제 공급 경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HVDC 선로는 2023년 492C-km에서 2038년 3,818C-km로 확대될 계획으로, 초기 수행실적이 향후 신규 구간의 인증과 수주 경쟁에서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송전망 대응량화에 맞춘 후속 제품 개발 확대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송전선로 확대와 함께 기존 선로의 송전용량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신규 수요처를 계통에 연결하기 위한 기술고도화가 병행되고 있다. 동사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LSCC와 ASCC430·520 등 고용량 전선용 금구를 개발해 왔으며, 현재 HCSC500과 고전력 송전선용 금구를 후속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6년에는 Armor Rodless 현수클램프를 신규 개발과제로 추가해 설치성과 구조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이다. Grand View Research는 국내 송배전 기자재 시장에서 애자 및 금구류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HVDC 시장 역시 2025~2030년 연평균 1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동사의 성장축도 기존 교체수요에서 차세대 송전망 신규수요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 경쟁력과 신제품을 축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추진

동사는 2026년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생산 공정개선에 따른 원가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주주환원,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대규모 설비증설보다 기존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HVDC·고용량 전선·철도 신제품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사업구조가 국내 전력·철도 인프라에 집중돼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과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구축이 직접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HVDC 납품실적과 고강도 전선용 금구 기술을 기반으로 대만·동남아 등 해외 전력망 시장으로 공급지역을 넓힐 경우 지역적 확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초고압 교류송전에서 HVDC와 고용량 전선으로 이어지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감안하면 동사는 국내 전력망 고도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명전기(01751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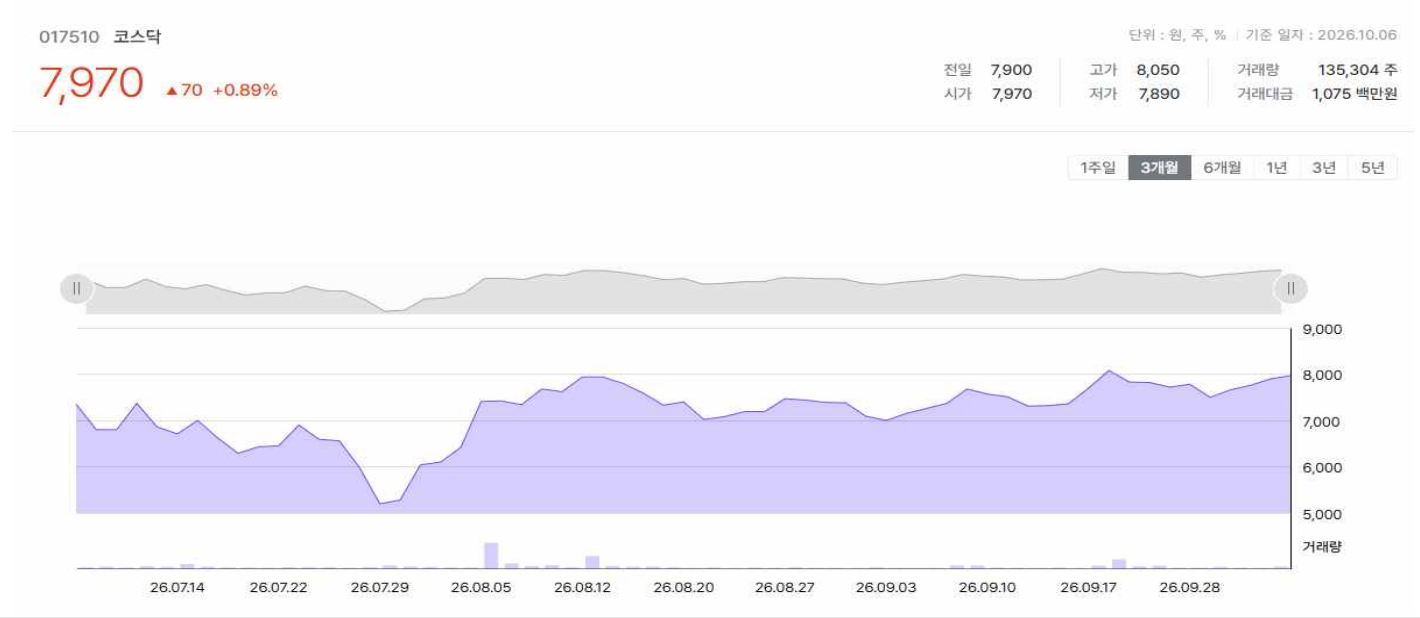
☒ 생성형 AI 답변 :
“60년 이상 축적한 초고압 금구 기술을 기반으로 500kV HVDC 상용 공급과 고용량 전선용 신제품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내 송전망 고도화 수혜기업.”

- 출처 : Claude

증권사 투자 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 내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6.10.0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세명전기	X	X	X